

진여원(眞如苑) NEWS LETTER

[제9호](2014.5)

서울시 용
산구 청파
동 3가
119-2 진
여원홍보팀

자비심, 지혜,,,큰 구제를 주신 존상...아쉬움속에 총본부로

큰 감동과 많은 구제를 안겨주신 개조·영조·교도인·신도인님의 존상참배가 4월 20일 오후 2시 클로징 세례모니로 막을 내렸다. 화창한 날씨속에 개최된 식전에 법당을 가득채운 교도들은 짧은 기간이었으나,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귀함에 감사하며 아쉬운 이별의 시간을 함께했다. 강주녕·이충렬 교도는 '감사의 글(보내는 말씀)'에서 '흘러가는 귀한 시간을 잡지 못하고 이별해야 하는 것이 야속합니다만, 결연을 통해 교도 한분 한분과 교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이니 아쉬움 마음 하나로 부처님들의 옷깃을 붙잡지 않겠습니다'며, 클로징의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클로징 세례모니에서 감사의 독경>

서울에 뿌리를 내린 진여원의 역사는 30여년에 불과하나, 지금이 진여원의 향후 300년, 1천년을 향한 탄탄한 발전의 토대

가 되어야 하는 초창기인만큼 교도 모두 진여원의 선구자라는 각오로 중정스님을 중심으로 화합으로 역사를 창조해 나가자는 김형태 이사의 당부도 있었다. 아울러 참배기간 중 받은 많은 감사를 이 땅의 많은 사람구제를 위해 실천해 나가자는 박노경 교도의 선창으로 참좌자 모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며 큰 소리로 보사의 각오와 맹세를 하며 클로징의 대단원을 장식했다.

여객선 세월호 희생자 위한 충심공양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진여원에서는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100일간의 충심공양을 올리고 있다. 아울러 법요도 애도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극락왕생과, 엄청난 쇼크를 받은 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매일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다.

나카무라 국원, 부산정사 관련 법당

4월 19일 법상회에서 나카무라 국원은 개조께서 대열반상을 제작하신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다. 길이 4m 85cm, 중량 1톤에 이르는 거대한 대열반상을 근각하신 개조님의 제세위인(濟世爲人) 정신이 아니었다면 조각전문가조차도 3년 내에 제작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불과 3개월 만에 제작하신 것은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또한 부산정사에도 근각된 열반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사낙경은 참좌자 본인 뿐만 아니라 7대 선조 및 7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덕을 입게 될 것이라며, 교도 한 분 한 분 마음의 장엄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부산정사, 외관 드러내보여

부산정사 신축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어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의 외관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장엄한 외관 드러내기 시작한 부산정사>

부산정사는 3층 건물로 신축되고 있는데, 인근 변화가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 종래의 사찰과는 상이한 새로운 이미지의 현대식 불교사원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다.

한편 대열반상을 모시는 보전은 3층에 자리잡고 있는데, 보전을 둘러싸고 복도가 사방으로 통해있다.



<부산정사 3층 보전(왼쪽) 주위 복도>

존상참배기간 중 본에자에 18명 상승

존상참배가 진행되고 있는 4월 12일과 13일에 부산 및 서울 포교소에서는 대승 및 환희 본에자가 각각 개최되었다. 부산에서는 대승에자에서 5명, 환희에자에서는 4명이 각각 상승했고, 서울에서는 대승에자에서 3명, 환희에자에서는 6명이 각각 상승했다.

<존상참배 오프닝 세레모니>

감사의 글(부회대표 유문희)

2014.3.30



먼저 개조와 영조 그리고 두 동자님을 현실에서 맞이한 귀한 이때에 감사의 글을 올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받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위였지만 위로 다섯이나 되는 오빠, 언니 덕분에 별 어려움 없이 막내로 자란 저는 결혼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막내로 태어나 별 어려움 없이 유복하게 자란 남편 역시 저를 만나 결혼을 하면서 두 집안의 얹히고 설키는, 그리고 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얹혀만 가는 실타래와 암흑과 같은 인연의 굴로 빠져들었습니다.

자라면서 큰 고난을 겪어본 적 없이 그저 각자의 즐거운 세상에 빠져서 하고 싶은 것 다하면서 살아왔던 저와 남편 ... 아!...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이렇듯 의문으로 가득차고 꼬여만 가는 우리의 결혼생활에 남편이 먼저 시작한 신묘엔의 접심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실타래를 한오라기 한오라기씩 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퍼즐 맞추듯이 맞아떨어지는 인연업보의 실오라기를 풀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깨달음이란 인생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인연을 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에 남편과 저는 네살박이 아들을 데리고 한 달에 한번씩 울산에서 서울로 접심을 받기 위해 삼년을 왔다갔다 하는 정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돌 위에서도 삼년이라는 부처님말씀을 접심에서 받고 실천하기 시작한지 어느덧 15년. 그 당시 정진하던 나날을 되돌아보면 비록 먹을 것이 없어 주먹밥을 싸가지고 다니면서도 저의 인연업보를 알고 하나씩 하나씩 순하게 실마리를 풀어가면 되겠구나 하며 ‘접심’이라는 한줄기의 빛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남편과 아들, 세 식구가 한집에 모여사는 것이 저의 소박한 소원이었던 그때를 돌아보며 이제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저와 남편이 되었다는 것, 각자에게 맞는 화두를 접심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신의 삶을 각자가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깨달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 열반의 가르침을 새롭게 열어주신 개조 교슈사마, 영조 쇼쥬신인사마, 그리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 받아주시는 양 동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이와같이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신묘 게이슈사마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목숨 살아있는 현세에서만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의 가르침을 영원히 지키고 이어갈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쳐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드리며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를
처음 맞이하는 한국땅에서

<존상참배 오프닝 세레모니> 감사의 글(청년대표 박유림) 2014.3.30



따뜻한 봄날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께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국의 교도분들과 함께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매우 뜻 깊고, 감사합니다.

7살 꼬마였을 때, 할머니의 손을 잡고 법요를 들으러 간 후 2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떠오르는 건 작은 방 안에서 들리던 ‘나무 신노이치노 다이하츠네한교’, 그 음조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저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추운 겨울, 떠나지 않는 눈으로 잠에서 깨어나 게이슈사마의 ‘미쓰공인호쓰로상게노몬(밀엄원발로참회문)’의 음성을 듣는 것 또한 그저 좋았고,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소오야사마와 료도지사마의 이야기는 동화 속에 나오는 햇님과 같이 따뜻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년의 세월 동안 소오야사마와 료도지사마의 가르침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무 신노이치노 다이하츠네한교’를 마음으로 창화했고 슬프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제일 먼저 생각난 것도 또한 소오야사마와 료도지사마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이룰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소오야사마의 제섭섭수, 료도지사마의 발고대수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든든한 뒷받침을 받으며 부모님의 보호 아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목표하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진로에 대해 고민했을 때는 접심을 통해 소오야사마의 말씀을 따라 저의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 좋은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만약 가르침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당연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시절을 따뜻하게 위로받을 수 있었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세요. 대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라는 료도지사마의 말씀. 지금은 이렇게 어엿한 청년이 되어 료도지사마의 뒤를 잇는 역할을 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소오야사마와 료도지사마의 크나큰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 그리고 게이슈사마를 만나 지금과 같은 행복과 기쁨을 느끼듯, 다른 청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선에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영능자를 목표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게이슈사마, 천지 호법선신님, 료도지사마, 소오야사마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노엔의 청년답게 힘차고 밝게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상참배 클로징 세레모니> 감사의 글(보내는 말씀 : 강주녕 · 이충렬) 2014.4.20



상주제에 이은 2014년 3월 29일, 온 누리에 푸른 생명의 기운이 퍼지고 개나리와 벚꽃의 봄오리가 피기 시작할 때 개조, 영조님과 두 동자님께서 봄바람의 따뜻함과 함께 한국 교도들을 만나기 위해 친히 한국을 찾아 주셨습니다(공동).

상참배 준비 봉사의 귀한 기회를 받고, 준비를 함께 하였지만 부족한 시간과, 잘 모시고 싶다는 형태적 완성에 욕심을 내어 쓰여지는 감사보다 불평으로 상참배 오프닝을 맞이했습니다. 네 분의 상이 장엄되고 클로징 세레모니 동안 새벽같이 모여 한 달음에 서울까지 와주신 지방 교도분들의 진심과, 결연하시는 신도분들의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는 마음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이충렬).

사무국에서 상참배 사진봉사를 부탁받고 기쁨과 걱정이 함께 교차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사진을 찍으면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사진 봉사자의 특권으로 개인 교도로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거리에서 상주님을 뵈 수 있다는 게 기쁨이었으나, 부족한 저의 실력으로 인하여 귀한 순간을 제대로 잘 잡지 못해 상참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봉사자분들의 노고에 흠이라도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앞섰습니다. 오프닝 세레모니가 시작되고 한 컷라도 더 좋은 사진을 찍고 싶어 온 정신을 집중하여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세레모니가 진행되는 동안 사진사의 본분을 잃고 교도분들과 같이 동화되어 귀한 순간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실수도 많았습니다. 상주분들의 모습과 교도분들의 귀한 순간을 제가 직접 담아낼 수 있었다는 감사와 그 사진들을 교도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사진 봉사자로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강주녕).

귀원하지 않은 소속, 가족들, 친구들을 소오야, 료도지사마께 만나게 해드리려는 교도분들의 실천을 보면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가르침에 입신하여 귀원하기 시작한 초기, 차라리 한국절에 다니라고 완강히 반대하셨고, “나는 절대 너네 절에 가는 일이 없을 거야” 하시던 아버지를 소오야, 료도지사마와 만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본절에서 귀한 존상이 왔는데 한번만 꼭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한번은 딸 다니는 절에 가봐야지' 하시며 순순히 귀원하시어, 법요에 참석하시고 소오야, 료도지사마와 결연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귀원이 제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결연을 통하여 자식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와 동일한

<존상참배 클로징 세레모니> 감사의 글(보내는 말씀 : 강주녕 · 이충렬) 2014.4.20



부모님의 마음으로 제 곁에서 저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해주시며 언제든 제 기도를 가까이에서 들어주시는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의 살아계심, 상주를 깨달았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로 지난 4월 12일 참마음으로 허락된 서울포교소 환희본에자에서 환희를 상송받았습니다(이충렬).

작년 조금 큰 수술을 받고 몸을 회복한다는 핑계로 본에자 기원에 온 마음으로 정진하지 못했습니다. 본에자가 있던 당일 새벽, 예자기도를 하다가 눈을 뜨는데 상송표가 눈앞에 나타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절에 가는 내내 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꿈에서처럼 된다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대승에 비해 너무 쉽게 상송을 받는 거라 상송의 귀함을 모르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안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본에자에 임하는 것 또한 아닌 것 같아 “되도 감사” “안되도 감사” 란 마음으로 절에 도착했습니다.

인도자분께서 어떠한 마음가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자에서의 기도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해 보이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의 기도가 통하였는지 영언의 말씀도 자심감을 가지고 물러서지 말고 나아가라는 영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고레이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수술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 준 제 자신과 그 보다 더 큰 고통을 이겨내신 아버지,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해주신 상주님을 떠오르니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강주녕).

우리는 오늘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보내드려야 하는 석별의 장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만 흘러가는 귀한 시간을 잡지 못하고 이별해야 하는 마음이 못내 야속하기만 합니다. 비록 내일이면 떠나가시지만 결연을 통해 교도 한분 한분의 마음속 부처님과 충분히 교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늘 헤어짐이 있는 법이니 아쉬움 마음 하나로 부처님들의 옷깃을 붙잡지 않겠습니다(강주녕).

살아계신 실체로서 한국에 발걸음을 옮겨주신 소오야, 료도지사마의 참마음을 몸소 느끼고 혼에 새기며, 비록 오늘을 마지막으로 총본부로 보내드려야 하지만, 많은 한국교도를 만나고 싶다, 사람들이 구제되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하신, 네 분의 참마음에 일생을 걸고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한국 신노 교도들과 오야소노에 귀원하여 곧 다시 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이충렬).

신노 교슈사마, 쇼쥬신인사마, 교도인사마, 신도인사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공동).

<존상참배 클로징 세레모니> 이모저모



<오로지 감격! ... 뿐입니다>



<참좌 교도들을 바라보시는 진여부처님>



<부처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보전 입구까지 가득메운 교도들!>



<부처님! 오직 ... 감사뿐입니다!>



<한마음으로 창화하는 독경>



<열심히.....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참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교도들>

<존상참배 클로징 세레모니 >

남녀노소 모든 교도들..한 마음으로...진지한 결연의 순간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해져 오는 진여 부처님의 따스함>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드디어...진여부처님과의 결연!>



<언제까지라도 닦아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거죠!>



<오늘의 이 감동!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들도...할 수 있습니다!>

